코로나 확진자 속출 남자농구 마닐라 월드컵 예선 참가 무산

협회 "추가확진 우려…불이익 최소화 노력"
KBL, 정규리그 일주일 연기…4월 5일 종료

KBL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남자농구대표팀의 국제대회 참가가 최종 무산됐다.

대한농구협회는 대표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22일 긴급회장단회의를 열었다. 협회는 24일부터 28일까지 버블 형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2023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 대표팀을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

대표팀은 선수 16명으로 18일부터 고양체육관에서 강화훈련을 시작했다. 소집 직후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을 제외한 13명 중 3명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인원이었다. 21일 늦은 오후 기준으로 1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22일 필리핀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국 전 마지막 검사에서 소집 후 줄곧 음성 반응을 보이던 1명이 확진으로 판명되면서 협회는 대표팀 파견 여부를 놓고 긴급회의를 열기에 이르렀다.

협회 관계자는 "대표선수들의 추가 확진이 우려되는 상황에 따라 대표팀을 파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회의 결정사항을 FIBA에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FIBA의 회신 내용을 봐야 하지만 이번에 예정된 4경기를 제외한 2경기가 6월 국내에서 열린다. 해당 경기를 통해 월드컵 예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기회는 있다. 필리핀에서 열리는 4경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KBL은 이날 서울 신사동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연기된 올 시즌 정규경기 일정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규리그 일정을 일주일 연장해 4월 5일 종료하기로 했다. 플레이오프(PO) 방식은 일단 바꾸지 않는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정규경기 일정의 추가 연기가 어려울 경우 PO를 축소하기로 했다. 4주 이상 정규경기 일정 연기 시에는 이사회를 재소집해 논의한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22일 오후 5시 기준 KBL 소속 선수 83명과 지원스태프 포함 코칭스태프 25명이 확진됐고, 리그는 중단됐다. 또 대표팀의 국제대회 참가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 그럼에도 KBL 수뇌부는 이와 관련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로 2년2개월만에 관객 만나는 최민식

"북한 사투리? 새터민과 술 마시며 배웠죠"

탈북 수학자와 미숙한 소년의 교감
대본 봤을때 '굿 윌 헌팅' 떠올랐죠
어른들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영화
새터민과 이런저런 이야기 큰 도움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탈북한 천재 수학자를 연기한 배우 최민식은 "실제 새터민과 술 한 잔 기울이며 친구로서 대화를 나눈 덕분에 북한 사투리를 금방 익혔다"고 돌이켰다. 사진제공 | 쇼박스

배우 최민식이 관객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새롭게 나선다.

3월 9일 개봉하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감독 박동훈·제작 ㈜조이래빗)를 통해 2019년 12월 '천문:하늘에 묻는다'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관객을 만난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 '범죄와의 전쟁:나쁜놈들 전성시대', '신세계', '명량' 등 굵직한 작품에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스크린을 뜨겁게 달군 그가 강렬함 대신 따뜻한 위로를 택했다.

극중 최민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자유롭게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탈북한 천재 수학자이다. 하지만 수학이 대학 입시의 도구로만 여겨지는 남한의 현실에 실망해 신분을 숨긴 채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다 한 학생(김동휘)에게 수학을 가르친다. 영화는 아픔을 지닌 스승과 미숙한 소년이 만나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성장해가는 이야기이다.

●한국판 '굿 윌 헌팅'의 탄생

두 사람의 모습은 위태로운 반항아 맷 데이먼과 그의 마음을 보듬는 교수 로빈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그린 할리우드 명작 '굿 윌 헌팅'을 떠올리게 한다. 최민식은 "어찌 감히 로빈 윌리엄스와 비교하겠는가"라며 멋쩍게 웃으면서도 "그 영화를 봤을 때 감동이 떠올랐다"고 털어놓았다.

"분명 '굿 윌 헌팅'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대본을 봤을 때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 세대를 불문하고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만나 소통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죠."

수학이라는 소재로 '학원 드라마'의 외피를 띄지만, 영화는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언뜻 보면 훌륭한 성인이 미완의 젊은 청춘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에요. 오히려 어른이 스스로 성찰하며 삶을 곱씹게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 아닌, 반성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념보다 감성에 집중"

최민식은 1999년 개봉해 한국영화의 중흥을 이끈 영화 '쉬리' 이후 22년 만에 다시 한번 북한 출신 인물로 나선다. 하지만 '쉬리' 속 이념에 매몰된 북한 비밀특수 공작원과는 180도 다르다. "북한 출신이라는 설정보다 학자의 감정에 더욱 집중"했다.

"극중 인물에는 천재와 탈북이라는 두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연기에는 두 가지 상징성을 배제하려고 노력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학문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학자의 상실감, 그런 그가 한 학생을 만나 나누는 교감에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투리 연기 준비 과정도 비교적 수월했다. 실제 새터민에게서 사투리를 배우는 시간을 "수업이 아닌 친구와 나누는 대화"로 받아들인 덕분이기도 하다.

"사투리 수업을 받는다기보다는 탈북 이유, 남한 속 삶 등을 묻고 이야기를 들었죠. 술 한 잔하면서 그분의 삶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죠. 그런 과정이 캐릭터를 준비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됐어요."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손흥민, EPL 파워랭킹 '57단계 상승' 44위…황희찬은 242위

맨체스터시티전에서 2개의 도움을 추가한 손흥민(30·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 파워랭킹이 급상승했다.

손흥민은 22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가 발표한 2021~2022시즌 EPL 파워랭킹에서 4300점으로 전체 선수들 중 44위에 자리했다. 지난주보다 무려 57계단이나 상승했다. 팀 내에선 8위에 오른 해리 케인(6484점)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손흥민은 20일 맨체스터시티와 EPL 2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도움을 올리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경기 개시 4분 만에 특유의 빠른 질주로 상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잡은 손흥민은 데얀 클루셉스키의 선제골을 완벽하게 도왔고, 후반 14분에는 빠른 크로스로 케인의 추가골에 기여했다. 오랜만에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팀의 3연패 탈출을 도운 그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EPL 이 주의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다.

또 다른 프리미어리거 황희찬(26·울버햄턴)은 1047점으로 242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2월 부상을 당해 2개월간 공격 포인트를 쌓을 기회가 없었던 그는 13일 토트넘전에 교체로 출전해 복귀전을 치렀고, 21일 레스터시티전에도 교체로 나서는 등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스카이스포츠 파워랭킹은 골, 도움, 유효슈팅, 태클, 승패 등 35가지 통계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해 EPL 모든 선수들의 순위를 정한다. 파워랭킹 전체 1위는 9262점을 얻은 하킴 지예흐(첼시)에게 돌아갔다. 지예흐는 20일 크리스털팰리스와 원정경기 후반 44분 결승골을 터트려 1-0 승리를 이끈 것을 비롯해 최근 EPL 5경기에서 3골을 뽑는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스카이스포츠 EPL 파워랭킹

순위	선수	소속	포인트
1	하킴 지예흐	첼시	9262
2	알리송	리버풀	8212
3	키어런 트리피어	뉴캐슬	7971
4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7908
5	조세 사	울버햄턴	7724
6	후벵 네베스	울버햄턴	6963
7	부카요 사카	아스널	6554
8	해리 케인	토트넘	6484
9	제로드 보웬	웨스트햄	6450
10	요엘 마티프	리버풀	6254
44	손흥민	토트넘	4300
242	황희찬	울버햄턴	1047

※ 22일(한국시간) 발표